

“열심히 훈련해 국제대회서 메달 딸래요”

● ‘요트 최연소 국가대표 상비군’ 보성 노동초 4학년 바다울양
요트 청소년 국가대표 오빠 따라다니다 작년 시작
언니도 선수생활...운동능력 뛰어나 성장 기대감

보성 노동초등학교 4학년 바다울 학생이 요트 종목에서 최연소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바다울 학생은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빠(보성남중 3·요트청소년 국가대표), 언니(노동초 6)와 함께 요트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바다울 학생은 “처음에는 목욕탕에서 탕 속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물을 무서워했지만 오빠를 따라다니며 물놀이를 하다 보니 점점 물과 친해졌다”며 “몸이 물에 뜨는 것을 느끼며 자신감이 생길 무렵 엄마의 적극적인 권유로 지난해 여름 요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다울 학생은 지난해 보성비봉마리나 요트 스포츠클럽에서 주최한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요트 대회에서 2위를 수상해 요트 선수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고 올해 1월 태국 파타야에서 동계훈련 중 두 번의 국제 대회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거둬 2024년 옵티미스트 종목 최연소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됐다. 올해도 각종 대회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바다울 학생은 “저는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왜소하지만 상비군 훈련에서 체력강으로 뽑힐 만큼 열심히 운동을 했다”며 “학교 생활에서도 매우 적극적이며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오빠처럼 청소년국가대표도 되고, 코치님처럼 국제대회에서 메달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성 노동초등학교 4학년 바다울 학생이 요트 종목에서 최연소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바다울 학생이 훈련 중인 요트에 앉아있는 모습.

송민재 코치는 “다올이는 어리지만 다부지고 운동 수행 능력이 뛰어난 데다 어려운 요트 용어도 잘 습득해 훈련에 임하고 있다”며 “요트가 유럽에서 시작된 만큼 신체 조건을 무시할 수 없으나 요즘은 종목이 다양해져서 동양권 선수들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코치는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다올이를 꾸준히 훈련 시키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수열 노동초 교장도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멋진 선수가 되길 바란다”며 “학교 생활과 개인 훈련을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는 바다울 선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이 기자

박경우 동강대 창업지원단장 대학창업대전서 공로상 수상



동강대학교는 13일 “박경우(사진) 창업지원단장이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대학창업대전’에서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및 창업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학창업대전’은 대한민국 대학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국 15개 대학과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창업학회,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박 단장은 지난 1000년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개소 이후 스타트업(Start up)의 교육과 컨설팅, 창업인프라 구축에 매진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운영평가에서 국내 유일의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박 단장은 제14대 광주·전남창업보육협의 회장을 역임하며 광주·전남지역 우수 창업기업 발굴과 창업보육센터 위상 제고에 힘쓰고 있다. /김대이 기자



전남도,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역량 강화 교육

전남도는 13일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사 안전사고와 근로 권익 침해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순천호남호국기념관에 이어 15일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 하에 권역별로 이뤄진다.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2023년 활동지원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관계자를 초빙해 ▲사회복지시설 노무 관리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안전교육 ▲사례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과 평가 우수사례 공유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육을 통해 제공기관의 활동 지원 서비스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이용자의 서비스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정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정기 직무 교육을 실시,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 양질의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고흥경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고흥경찰서는 13일 “전날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흥동초등학교 후문에서 광양경찰서, 고흥교육청, 고흥여중, 고흥동초 교직원·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 운전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시민들의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고흥=최봉환 기자

어린이들에게 ‘서다, 보다, 걷다’라는 안전 보행 원칙과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기 등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학용품을 배부해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허양선 고흥경찰서장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등굣길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주민의 교통 법규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김춘성 조선대 총장, ‘천원의 아침밥’으로 학생들 격려

조선대학교는 13일 “전날 김춘성 총장이 학생들에 ‘천원의 아침밥’을 직접 건네고 같이 먹으며 격려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 2022년 기준 청년층(대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50%를 기록함에 따라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선대는 지난 4일 사업을 시작, 오는 12월19일(매주 월-목요일·1·2학기 중간고사 주간에는 금요일 제공)까지 총 120일간 2만8천800개의 도시락을 제공한다. 조선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편의점(8개)에서 오전 8시30분부터 판매한다. 정부 지원금 2천원, 지자체 지원금 1천원, 학교부담금(생활협동조합 지원금 포함) 1천원에 학생은 1천원으로 5천원 상당의 도시락을 아침



밥으로 먹을 수 있다. 김춘성 총장은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이 1천원으로 균형잡힌 식단의 아침밥을 먹으며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이 기자



영광교육지원청, 관내 지역아동센터 교재 전달

영광교육지원청은 13일 “전날부터 14개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학습교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들 1인당 연간 8만 원 상당의 교재와 교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1학기 교재를 신청받아 제공했으며, 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아동센터의 석식 지원, 특별 프로그램 등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식당, 공부방 등 내부 시설을 둘러 보며 늘봄교실과 연계 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공유했다. 모미경 작은숲지역아동센터장은 “바쁜 시간을 쪼개 센터를 방문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따뜻한 나눔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광진 영광교육장은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영광 교육”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놓치지 않고 무한한 관심을 갖고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동부소방, 주거용 복합건축물 무각본 합동소방훈련

광주 동부소방서는 13일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 소방력의 유연하고 신속한 활동을 위해 주거용 복합건축물 3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5일까지 분서 주관 무각본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각본 합동소방훈련은 화재 등 재난상황 시 자위소방대의 신속한 대응활동 강화와 관계자 중심의 재난대응능력 배양 및 초기 대응능력 향상,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진행된다. 훈련에는 소방 29명, 자위소방대 8명과 장비 8대(지휘차, 펌프차 3, 고가사다리차, 구조차, 구급차, 순찰차) 등이 동원됐다. 주요 내용은 ▲자위소방대 화재진압 훈련 및 소방서·자위소방대 합동화재진압 훈련 ▲화재 시 입주민들의 대피 중 연기 흡입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연결 송수관 점검 및 고가 사다리차 전개 등 진압작전 강구 중점 등이다. 서재건 동부소방서 119재난대응단장은 “평상시에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고 건물 안전관리는 물론, 소방 훈련에 적극 임하는 등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대처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은정 기자

여수소방, 화목보일러 주택 화재 안전시설 설치

여수소방서는 “최근 여수시 소라면 마산마을 등 3개 마을의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 5곳에 화재 안전 시설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화목보일러의 화재 발생을 방호해 화재 발생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안전 사용 수칙을 교육했다. 화목보일러는 농가 주택이나 공용 건물 등에서 난방차 절약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2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박원근 여수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의 화재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나주 봉황파출소, 주민 친화 정성치안 활동

나주경찰서 봉황파출소는 13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민 친화적 정성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봉황파출소는 ‘치매 노인’이 전동차 고장으로 길을 헤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치매 노인을 발견, 무사히 귀가조치했고 전동차도 안전하게 인계했다. 김주섭 봉황파출소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순찰 활동·주민 친화적 정성치안 실천으로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



전남교육청-켄텍 ‘미래교육 환경 조성’ 협약

전남도교육청은 13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 김대중 도교육감과 박진호 켄텍 총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전남의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추진 ▲미래교육환경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교원 연수 지원 ▲미래교육 환경 조성 성과 교육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김대이 기자



보성경찰, 학생 통학로 ‘보호 울타리’ 설치

보성경찰서는 “최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벌교고등학교에서 벌교여자고등학교로 이어지는 130m 구간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인도를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 울타리 설치 구간은 달리는 차량이 과속이나 부주의로 인해 인도를 침범하는 것을 막고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이다. /보성=임병연 기자